테마칼럼 | 경제로 세상보기 | 예술로의 초대 | 법과 함께 살며 | 정보·문화 세상

실버사회와 실버경제의 새로운 기회

김휘언

“노인들의 삶의 개념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어느 노인의 푸념이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노역 배우들이 파업이라도 해서 홈드라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 그렇게라도 하면 실버가 골드 값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인생이란 어느 시기이건, 어떤 짧은 한 순간이건 골드가 아닌가.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65세 이상이다. 공원이나 전철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듯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어떤 매스컴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젊은이 몇 명이 일해서 노인 몇 명을 먹여 살린다는 주고 받기식의 경제적 시각으로만 보도하기도 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집중력 등의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어 일의 생산성이 낮아진 노인 인구 때문에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 등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소득에 대한 개인 저축률이 증가할 수 있고 연기금을 통한 사회 전체 저축률도 증가한다. 또한, 물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 조기퇴직 등으로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완충역할로 충격을 완화시켜 유연성을 증대 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고령화추세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함께 지니게 된다. 고령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활이 향상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삶의 개념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현재의 30% 정도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실버 임금은 축소하며, 소득원 구조를 자녀 의존적 소득에서 근로소득, 자산 소득과 정부의 생활 보조금 등의 비율을 높이는 소득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재취업프로그램, 노인 공동작업장,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감이나 일의 방법 등, 산업인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노인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버산업분야는 현재의 경제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고용시장 확대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R&D 활성화 등 좋은 투자기회가 되고 있다. 주거 이용시설, 의료 요양, 기구 용품, 금융 보험, 재가 복지서비스, 여가 교육 시장 등은 미래에 급팽창할 새로운 시장이다. 광주 노대동의 실버타운은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숨 가쁘게 뛰어 온 우리 사회가 이제 숨을 고르며 내면 문화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발전은 성장과 안정의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고, 젊은이와 노인들의 어울림으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먹이고 보호하지만 부모를 먹이고 지키는 경우는 없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키우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고귀함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일본 20%, 미국 13%, 프랑스 17%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평균 16%를 넘기고 있지만 대부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 보다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린 그들보다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실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늙은이의 길로 여행하고 있는 젊은이가 아닌가. 〈목포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여야, ‘4·29’ 민심 엄중히 헤아려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은 물론이고 안마당인 울산 북구와 경주에서도 완패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인 경기 시흥시장을 포함하면 0 대 6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43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불과 5곳에서 실시됐지만 단순한 산술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남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현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 할 수 있다. ‘경제 대통령’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1960~70년대식의 경직된 국정 운영 등에 등을 돌린 것이다. 전국 여론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부평을에서 한나라당이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완패한 것은 민심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적 성격이 강해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심히 우려스럽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이지만 일반적인 민심이 압축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선거’로 폄하해 기존 국정운영방식을 고집한다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훨씬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 부평 을 국회의원과 시흥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체면’을 세웠지만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전주에서의 패배는 호남의 민심이반을 잘 보여준다. 특히 철옹성이라고 자부하던 장흥2선거구(광역의원)와 광주 서구 다선거구(기초의원)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깃발과 꽂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프리미엄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 참패를 엄중히 받아들여 국정운영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의 미래나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료 체계 바꿀 때 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밭농사용 전기요금이 논농사의 두 배를 웃돌아 최근 급변하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논(양곡생산)작물의 경우 ‘농사용 갑’ 요금체계가 적용돼 기본요금 340원에 kW당 요금 20.60원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밭작물과 저온저장 건조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병’ 요금체계가 적용돼 기본요금 1천70원에 kW당 요금 36.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같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체계는 과거 쌀을 농업의 근간으로 삼았던 정부정책에 따라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쌀보다는 비닐하우스 채소 재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또한 쌀 농사는 대규모 기업농으로 바뀌고 있다. 개방화 등으로 농촌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사용 요금체계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편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물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전력 생산 원가상승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용보다 싼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뜯어고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한다면 밭농사용 전기요금의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한전은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박은식

사랑의 묘약이 필요한 세대

이탈리아 작곡가 G.도니체티의 희가극(喜歌劇) ‘사랑의 묘약’ (렐이지르 다모르 L’Elisir d’Amore)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상업 방송의 광고 배경음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은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는 대농장 주인의 딸 아디나를 사랑합니다. 소풍을 나왔는데 아디나는 독서 중이고, 네모리노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지는데 자신에게 사랑을 호소할 힘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던 중 엉터리 약장수 둘까마라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얻은 신기한 묘약으로 알고 먹은 것은 포도주이었습니다. 사랑의 묘약으로 알고 마신 네모리노는 이제 그녀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디나는 눈길 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비대장인 멋진 군인 벨코레와 약혼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급해진 네모리노는 묘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디나는 자신을 향한 네모리노의 진실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아디나의 집 앞에서 홀로 남은 네모리노가 부른 유명한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을 부릅니다. 이를 본 아디나는 사랑을 맹세하고 네모리노는 사랑의 묘약의 효력이 나타났다고 기뻐하며 마침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옵니다. 샛별보기 운동부터 따스한 햇살 한번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는 묘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닭장 속의 닭처럼 꽉 짜인 틀 속에서 거의 꼼짝을 못합니다.

가정, 학교, 사회 주변의 상황들이 마치 당연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스를 수도 없는 닭장 속 분위기에 길들여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듯 받아들입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마땅한 배움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마땅한 권리는 거의 무시됩니다.

가정의 소망도 민족의 미래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딸들입니다. 좀 감상적인 오페라의 줄거리로 현실을 판단하려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러한 감성이 풍성해 져야하고 길러 주어야 합니다. 각각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묘약을 마련해서 그들의 가슴을 따듯하게 해주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 가득 담긴 아빠의 편지, 엄마의 선물,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여러 모양으로 묘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서현교회 목사〉

기고

김원식

마라톤의 계절!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서 달릴 수 있고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찬 본격적인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이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체력, 기술, 정신력, 운동량 등이 기본이 되겠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과 컨디션 조절, 영양관리도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기록을 목표로 삼아 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평상시 몸관리와 에너지 보충이 중요하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야채를 평소보다 많이 먹는 게 유리하다.

대회 3일 전에는 단백질은 피하고 밥, 빵, 감자, 면류 같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대회 전날에는 가벼운 조깅과 약간 빠른 질주로 페이스 감각과 몸의 리듬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회 당일 아침 식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출발 전 수분 섭취는 땀의 손실을 막고 체온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약 100~200cc정도의 물을 마셔두는 것이 좋으며, 레이스 중에 적절하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잊지 말자. 주스나 이온 음료는 고농도의 당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당을 급격히 고갈시키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경쟁심이나 승부욕보다는 즐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으며,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게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2.195㎞의 긴 레이스 중에는 많은 생각과 유혹들이 주자를 힘들게도 한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과 골인지점을 향해 처절하게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 역시 그러하다. 과욕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조건과 컨디션에 맞게 자신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혹여 욕심을 내어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초반에는 남보다 앞서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역량과 코스 조건 등을 감안, 골인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서 나아간다면 좋은 기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은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병력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되던 그리스 군이 마라톤들판에 상륙한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달렸던 전령처럼 기쁨에 넘쳐 달려보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가. 고독한 싸움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달린다. 전후 좌우에서 나와 똑같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는 치열한 경쟁을 할 때는 느낄 수 없고 편안하고 즐겁게 달려야 맛 볼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신선한 바람을 가르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달리다 보면 내 인생의 ‘러너스 하이’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러너스 하이’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계속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말한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보자. 〈전 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MBC ESPN 해설위원〉

마트 이용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최근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50원씩 지불하고 구입하는 그 비닐봉투의 총 매출액이 무려 연간 100억 원어치나 된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 대형 할인마트에서 종이봉투는 무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트에서는 그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혀 홍보하지 않고, 종이 봉투를 나눠주지도 않는다. 또한, 그런 법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주부는 거의 없다. 그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마트들은 그걸 무시하는 것 같다.

물론 마트에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문제가 없겠으나 요즘 주부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 찬거리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주부는 거의 없다. 또한, 이 비닐 봉투는 다시 반납하면 50원을 돌려주게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되면 비록 50원의 적은 돈이지만 절약이 되고,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비닐이 썩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비닐 봉투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2동

대포차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어야

대포차는 과태료도 안내고 보험도 안 들어있다. 그건 차량번호가 있어도 실제 소유주를 찾아내기 어렵거나, 혹은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파산법인 등이 주인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으니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대포차 운전자들은 이 차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으니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그걸 애용한다.

대포차를 거래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범죄자들이니 적발하고 단속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어찌 된 것인지 이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을 안 하는지 궁금하다.

이 말썽과 위험성을 가득 안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니 대포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포차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等鼓

황사 공조

속단하기 이르지만 올해는 황사발생 일수가 유난히 적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 황토 고원 등의 저기압 활동이 약화 되고 동풍이 주로 불면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라지만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중국으로부터 들려왔다. 어떻게 보면 황사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뉴스여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기상대는 “지난 23일 네이멍구를 비롯한 중국 서북부지방에서 수십 년래 보기 드문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지만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연인즉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5개였던 네이멍구 황사 관측소가 8개로 늘어 정밀 관측이 가능해졌고 황사 발생과 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관측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최악의 황사’도 네이멍구 기상대가 하루 전인 22일 밤 황색 경보를 발령해 랴오닝성 등 동북 3성은 이 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인공강우를 뿌려 황사의 진입을 차단, 그 피해를 막았다는 것이다.

황사는 매년 한국에도 천문학적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황사의 발생과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해 네이멍구와 랴오닝, 산둥, 지린, 간쑤 등 중국 동북부 지방에 10여 개의 황사 관측소를 건립하고 장비 구입과 운영 경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네이멍구 기상대의 고마움 표시는 황사 방지를 위한 한·중 공조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양국 협력에 가속도가 붙었다. 한중문화미래숲센터등 민간단체들도 수년째 네이멍구 등 황사발생지역 숲 가꾸기 사업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황사가 완전히 사라질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